



## [해외건설 법률플라자 2021] 제4회 김안장-해외건설협회 공동 웨비나

결과보고

2021. 11. 5

### □ 개요

- 행사명: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 제4회, 김안장 - 해건협 공동 웨비나
- 일시/장소: 2021. 11.4(목) 16:00~18:00 / Zoom 화상회의
- 주 최: 해외건설협회, 김안장법률사무소
- 후 원: 국토교통부
- 주 제: 해외 프로젝트 입찰 성공을 위한 노하우
- 참석자: 국토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정창구 센터장 등  
국내건설 기업 등 약 200여 명

### □ 주요 내용

- 개회사 및 사회 (김안장, 임병우 외국변호사)
  - 행사 개요, 식순 및 참석자 소개
- 축사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건설기업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을 준비했음.
  - 해외 프로젝트의 입찰 단계에서는 진출국의 제도적 특징, 금융환경, 사회·문화·자연환경, 현지 건설산업의 특징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하며, 경쟁여부, 참여제한, 입찰금액 등에 따라 다양한 입찰 방식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사업의 입찰 방식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함.
  - 이번 웨비나가 입찰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점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빌며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수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해외 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에 담긴 기업지원 및 애로해소의 일환으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법률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건설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세션1 해외 프로젝트 입찰 참여시 법률적 측면 체크리스트

(김앤장, 임병우 변호사)

- 에콰도르 정권 교체에 따라 우선협상자 지위가 상실될 위기에 놓인 한국공항공사의 에콰도르 만타국제공항 운영 사업 사례를 계기로 오늘 웨비나를 기획함
- 이렇게 우선협상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발주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하기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편당을 통하여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서는 비용, 리스크, 품질,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법률 리스크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함
  -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함
  - (Concurrent delay) 발주처와 계약자가 특정기간의 시공지연에 관하여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조심해야함
  - 계약자와 하도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간 Risk Allocation을 고려해야함
  - 로컬 규정 확인이 중요하며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ESG도 입찰 단계부터 고려해야함
  - 정치적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Change in law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안전함

○ 세션2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K-Banking을 위한 요건

(한국수출입은행 양구정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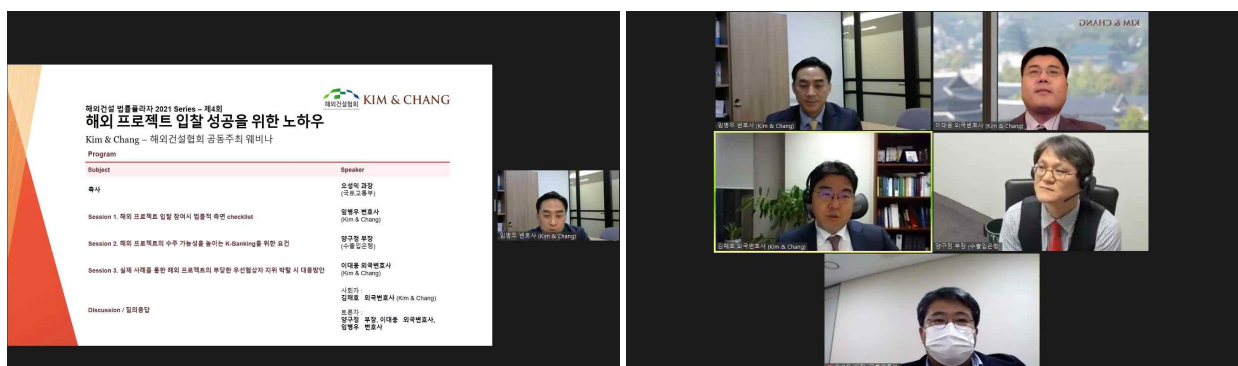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 지원 사업 사례 소개 -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공급 및 유지보수 사업
    - 수출금융 LA(500백만 유로) 발급, 수출금융(156백만 유로) 및 EDCF(243백만 유로) 금융패키지 매칭 제안 등을 지원했고, 입찰마감 후 금융패키지 재제안, 매칭(Matching) 제안, 낙찰조건부 지원 등 전략으로 진행하여 우리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추진함
  - 해외수주낙찰에는 공사수행능력(실물경쟁력) 및 자금조달 능력(금융경쟁력)이 중요함
  - 수출금융과 OECD협약 및 수출금융 보완을 위한 금융상품 소개
    - 수출기반자금대출: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수출금융을 지원할 수 있음
    - 수출금융 보완을 위해 현지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OBC) 상품 도입, EDCF와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경협증진자금(EDPF)** 도입
  -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상품 결합 사례 소개
    -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 계약 건(수출금융+EDCF)
    -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EDCF+경협증진자금(EDPF))
    - 네팔 수력발전 건설사업(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경협증진자금(EDPF))
    - 노르웨이 Rv.555 고속국도 PPP 사업(현지화금융 지원)
  - 해외 수주전이 국가간 경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
  - 정치적 리스크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문사를 고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 금융조건을 우리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하거나 금융조건 협상 시 확보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세션3 실제 사례를 통한 해외 프로젝트의 부당한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시 대응방안(김앤장, 이대웅 외국변호사)

- 오만 소하르 정유공장 확장 사업 - 당초 삼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대림산업이 Petrofac과 공동 수주함
- 기존입찰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 치요다 컨소시엄이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였으나 협상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놓고 이견이 발생되어 발주처가 B-bond 본드콜을 행사하여 삼성엔지니어링이 발주처를 제소하는 사건이 발생
-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오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하나 발주처가 오만 정부인 상황에서 오만 법원에서 판결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은 투자자 중재(ISD)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이에 오만과 삼엔 측은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봉합하고 삼엔은 오만 내에서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효과를 거둠
- 사우디에서도 발전플랜트 분쟁이 있었으나 ICSID에 중재를 신청(2017년)했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발주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2020년, 2021년에는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함
- ICSID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투자자 중재(ISD, Investor State Dispute)를 관할하는 기관임. 분쟁 발생 시에는 ICSID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향후 계획

- 12월 초(5회), 12월 말(6회) 개최 추진

## □ 웨비나 사진



- 정책지원센터 - 끝.